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서〉

'학학(嗃嗃)'은 가인(家人)을 의미하고 '희희(嘻嘻)'는 아들과 며느리를 가리킨다. 항안세는 "가인은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아들과 며느리는 다스리는 대상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아마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인은 "시경(詩經)"에서 "집안 사람에게 잘한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집안 사람을 통틀어 말한다. 따라서 종과 첩 같은 이들도 모두 그 속에 포함된다. 며느리와 자식은 가장 친밀한 관계이다.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법도를 삼가 며느리와 아들처럼 매우 친밀한 이라도 지나치게 관대하고 방종하여 희희덕거리게 해서는 안된다. 하물며 가인 가운데 종과 첩 같이 천한 사람의 경우에야 어떠하겠는가? 만약 강이 지나친 일로 말한다면 가인과 종 그리고 첩에 대해서만 엄하게 할 뿐 아니라 며느리와 자식과 같이 매우 친밀한 이에 대해서도 모두 탄식하며 근심하고 한탄하게 한다면 강포함이 은의를 심하게 손상함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두 가지 설 모두에 친절하다.

건(蹇) ䷦

「상전(象傳)」 산위에 물이 있는 것이 건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자신을 반성하고 덕을 닦는다[(山上有水蹇, 君子以反身修德].

물은 산의 흙 밑에서 솟아올라 산 위에 있다가 또 반대로 흘러 들어가 조금씩 산과 토양을 적시고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울창하게 만든다. 그러니 물의 성질은 흘러내리므로 위로 솟아나올 경우는 나아가기 어렵고, 또 아래로 흘러 들어갈 때도 산이 많고 험난하여 통하기 어려워 건(蹇)의 상(象)이 있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 어려움에 지척거릴 때를 당하여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여 자신에게서 나오는 언행을 삼가고 이를 통해 자신의 덕을 닦지 않음이 없다. 말과 행동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마치 물이 산에서 나오는 것과 같아서, 자신에게 돌이켜 온전히 언행을 삼감으로써 덕을 닦는 것 역시 물이 반대로 흘러 산을 기르고 도움을 주는 것과 같다. 군자는 언행을 항상 삼가지만 건(蹇)의 어려움을 당해서는 더욱 근신한다.

손(損) ䷨

'상전(象傳)', 산 아래 못이 있는 것이 손이니,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 분노를 징계하고 욕심을 막는다(山下有澤損, 君子以懲忿窒慾].

물이 산을 적시면 흙이 무너지고 흙이 못에 가득 차면 물이 마르니 위아래가 모두 손해가 된다.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 자신의 분노를 징계하고 욕심을 막는다. '분노[忿]'란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여 화를 내는 것이고, '욕심[慾]'은 탐욕스럽게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자신이 이롭기를 바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된다. 그러나 구하는 이익을 얻기도 전에 자신을 해치는 것이 따라오게 된다. 자신에 대해 분노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된다. 그런데 잠시 동안의 분노로 자신을 잊어버리고 부모에게까지 화를 낸다. 이는 남과 나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그 때문에 분노가 막 일어나려 할 때 그것을 징계하여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고, 욕심이 싹트려 할 때 그것을 막아 싹트지 못하게 한 뒤에야 자기의 덕에 손해가 없게 된다. '단전'에서는 덜어야 하는 도만을 말하고 '상전'은 덜어야 하는 가운데 다시손해가 없도록 경계하였다. 이것으로 상하가 모두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상징하였으니,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육사(六四) 그 병을 덜되 빨리 하게 하면 기쁨이 있다(損其疾, 使遄, 有喜].

'상전(象傳)', 그 병을 더니' 역시 기뻐할 만하다('損其疾', 亦可喜也].

"정전" "'역시[亦]'는 발어사다." 내가 생각건대, '상전'에는 윗문장만을 들면서도 아랫구절까지를 아울러 풀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윗 구절만을 풀이하면서도 그 나머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 '상전'은 윗 구절만을 풀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역(亦)'자는 효사인 '빨리 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어서 막한 핏이지 발어사가 아니다. 생각건대 초구가 양강(陽剛)으로 음유(陰柔)인 육사의 병을 덜어내니 또한 기뻐할 만한데 하물며 빨리 하게하면 어떠하겠는가? 효사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빨리 하게 한다는 것을 위주로 말한 것이고', '상전'은 그 질병을 덜어냈음을 위주로 빨리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기뻐할 만하다는 것이다.

익(益) ䷩

상구(上九) 도와주는 이는 없고 어떤 자가 공격을 한다. 마음을 항상되게 세우지 않아 흉하리라[莫益之, 或擊之. 立心勿恒凶].

"정전"에서는 '도와주는 이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삼구에 대해 도와주려 하지 않고 혹 치려 하는 것으로, 또 '물항(勿恒)'을 금지하고 경계하는 말로 보았다. "본의"는 글이 간결하여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어록"에는 "여기서 '물(勿)'자는 '불(不)'자일 뿐 금지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나는 역경에 사용된 '물'자는 '불(不)'자와 같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괘 구오 "묻지 않아도 크게 길하다[勿問元吉]"의 경우 역시 '불(不)'의 뜻이니 이 효에서도 갑자기 뜻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상구는 익(益)괘의 끝에 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더해 주어야 하나 도리어 자신에게 더하다 다른 사람의 해가 된다. 처음에는 더해 주는 듯하지만 끝내는 더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은 마음과 뜻이 항상되지 않은 사람이다. 내가 장차 자기의 사사로움에 치우쳐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나를 치면서 밖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 때문에 '상전'에서 "'도와주는 이가 없다'는 것은 치우쳤다는 말이고, '혹 친다'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장자(程子)는 '막익(莫益)'을 아래 문장 '밖에서 친다'는 것과 연결시켜 보았으므로 모두 다른 사람의 일로 여겨 설명이 길다. 대개 내가 사사로움에 치우쳐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나와 애써 다투려 하고 기꺼이 도우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같다면 '도와주는 이가 없다'는 말은 중복되고 통하기 어렵다. 그러나 내가다른 사람을 돕지 않아 다른 사람이 혹 와서 친다고 하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도 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자의 뜻이다. 다만 "본의"는 말이 간단하고 또 '막익'·'혹격'을 모두 나에게 해당하는 일이라고 본 듯하다. 효사로써 본다면 '혹 친다'를 내가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친다는 것으로 보아도 통할 수 있기는 하지만 '상전'의 말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타인과 나를 구분해 말해야 의미가 매우 분명해진다. 〈다음호에 계속〉

大宗院 任員 여러분께

乙未年의 마지막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丙申年 새해에도 大宗院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5년 5월 20일 大宗院定期總會에서 우리 시조 태사공의 춘추세향일을 변경하고 난 후 일부 宗員의 반대의견이 있어 그 경위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사를 봉행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공경심과 효심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증진하며 족친 간의 족의와 화목을 다지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현대 핵가족 사회에서 초래되는 단절과 공동체 의식의 결핍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친족들이 한데 모여 정담을 나누고 친족애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향사에 참제 하는 것이 숭조의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제향일 사례들을 살펴보면, 安東三太師廟에서는 2, 8월 中丁日에 三性이 모여 춘추향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金太師 단소는 음력 10월 10일에, 張太師 단소는 음력 10月 초1日에 각각 추향만을 봉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조 權太師 묘소는 음력 10월 中丁日에 추향, 한식일에 춘향을 봉행하고 있었습니다.

청도의 낭중공 단소는 1989년 11월 23일부터 오래도록 음력 3, 9월 下丁日에 춘추향사를 봉행하여 왔습니다. 그 이후 2011년 11월 22일부터는 신단소에서 시조와 같은 날에 향사를 봉행을 하고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있는 우리 始祖를 배향하는 雲谷書院은 매년 음력 3월 上丁日에 향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력 中丁日에 향사를 봉행하고 있는 다른 書院은 三溪書院, 道溪書院, 水谷書院, 龜灣書院 등이 있고, 下丁日에 향사를 봉행하고 있는 書院은 立巖書院, 靑城書院, 雲巖書院(광주), 白雲書齋, 滄溪 崇節祠 등이 있습니다.

제향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시조의 추향제일이 三太師 중에 제일 늦고, 권문의 다른 선조의 묘제보다 더 늦게 봉행하고 있음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시조의 춘향제일이 한식일이라 대소문중별로 직계 선조묘소를 돌보느라 시조의 춘향제에 참제하는 족친이 매우 적음은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조 太師公의 향사가 추석이 지나면서 각파 직계선조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또 각 선조 묘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앞으로 당겨 많은 족친이 참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향사 일자 변경사례를 살펴보면 성균관의 釋奠大祭도 처음은 上丁日에 봉행하다가 1937년부터는 양력 4월 15일과 10월 15일로 변경하였고, 1949년에 공자 탄일인 음력 8월 27일에 記念釋奠을 봉행하다가 1953년에 음력 2월과 8월의 上丁日로 다시 환원하여 현재까지 봉행하고 있습니다. 또 안동의 三太師廟祭도 명종 10년(1555년) 四時祭(정초, 단오, 추석, 동지)를 봉행하다가 선조 18년(1585년) 權好文公께서 2월과 8월 中丁日에 봉행하기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중의 여론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2015년 05월 0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과 원임회의를 거치고, 총회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 5월 20일 大宗院定期總會에 앞서 <시조추향일자 변경>안이 원임회의에서 결정되고 총회에 회부하여 **<시조의 춘향은 3월 中丁日, 추향은 9월 下丁日>**에 봉행하기로 한사람도 반대 없이 만장일치 의결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27일 宗務委員會(안동) 때 시조 춘추향사를 종전대로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발언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총회에서 결의 된 사항 이라 宗務委員會에서 환원을 결정할 수 없으니 금년 추향을 총회의 결정대로 봉행하고 내년 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하여 2015년 11월 7일(9월 下丁日) 시조와 낭중공의 秋享을 봉행하였습니다.

시조와 낭중공의 춘추향사 변경을 반대하는 족친들의 생각은 단순하게 下丁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조를 배향하는 雲谷書院의 향사는 上丁日에 봉행하고 名門世族의 聖賢을 배향하는 書院의 향사도 下丁日에 봉행하고 있는 서원이 많이 있음을 감안하고 새로운 향사일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족친 여러분의 뜻에 따라 향사일자를 온당한 절차를 밟아 변경한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족친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또 음력 3월 1일과 10월 1일로 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권문의 단합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이 문제를 임시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하오니 상기의 내용을 참고로 심사숙고해 보시고 족친 간의 친밀을 다지며 화합의 차원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11 일

安東權氏大宗院 總裁 權 正 達 拜上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正巖 權爀彩 (본원 종사 연구위원)

明心寶鑑 交友篇 (교우편) 解說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고로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五倫(오륜)의 하나로 되어 있는 朋友有信(붕우유신)이 바로 그러한 緣由(연유)에서이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기에 많은 벗을 사귀며 생활을 이끌어 간다. 벗이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위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교우(交友)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

● 子一曰(자一왈) 與善人居(여선인거)에 如入芝蘭之室(여입지란지실)하여 久而不聞其香(구이불문기향)하되 卽與之化矣(즉여지화의)요 與不善人居(여불선인거)에 如入飽魚之肆(여입포어지사)하야 久而不聞其臭(구이불문기취)하되 亦與之化矣(역여지화의)니 丹之所藏者(단지소장자)는 赤(적)하고 漆之所藏者(칠지소장자)는 黑(흑)이라 是以(시이)로 君子(군자)는 必愼其所與處者焉(필신기소여처자언)이니라.

해설 :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사람과 함께 살면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도록 그 향기를 맡지 못하더라도 곧 그 향기에 동화되고,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저린 생선가게에 들어서 있는 것과 같아서 오래토록 그 나쁜 냄새를 알지 못 하나 또한 더불어 동화되나니 붉은 것을 지니고 있으면 붉어지고 옷칠(漆)을 지니고 있으면 검어지느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있는 곳과 사람을 삼가 해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 家語에 云(가어에 운) 與好學人同行(여호학인동행)에 如霧露中行(여무로중행)하야 雖不濕衣(수불습의)라도 時時有潤 (시시유윤)하고 與無識人同行(여무식인동행)에 如廁中坐(여측중좌)하야 雖不汚衣(수불오의)라도 時時聞臭(시시문취)니라.

해설 : 가어에 이르기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同行)하면 마치 안개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적시지 않더라도 때때로 물기의 배어듦이 있어 윤택함이 있고, 무식한 사람과 동행 하면 마치 측간(厠間-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더럽히지 않더라도 때때로 그 냄새가 나게 되느니라."

참고 : 芝→지초 지, 蘭→난초 난(란), 지란지실(芝蘭之室)⇒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는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 芝蘭⇒선한 사람들, 또는 재주 있는 자녀를 칭하기도 함. 室→집 실, 방 실, 聞→들을 문, 냄새를 맡는다는 뜻, 여지화(與之化)⇒그것과 같이 동화(同化)된다는 뜻, 포어(飽魚)⇒저린 생선, 飽→생선 포, 魚→물고기 어, 肆→저자 사, 베풀 사, 臭→냄새 취, 愼→삼갈 신, 漆→옻나무 칠, 處→곳 처, 焉→이끼 언, 어찌 언, 소장(所藏)⇒가지고 있음, 소여처자(所與處者)⇒함께 있을 사람, 好→좋을 호, 霧→안개 무, 露→이슬 로(노), 濕→젖을 습, 潤→젖을 윤, 윤택할 윤, 불을 윤, 습의(濕衣)⇒옷이 젖음, 시시(時時)⇒때때로, 厠→뒷간 측, 汚→더러울 오, 오의(汚衣)⇒옷이 더러워 짐, 문취(聞臭)⇒냄새를 맡게 됨.

● 子一曰(자一왈) 晏平仲(안평중)은 善與人交(선여인교)로다 久而敬之(구이경지)온녀.

해설 : 공자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안평중(晏平仲)은 사람 사귀기를 착하게 잘 한다, 오래도록 이를 공경 하니라."고 하셨다.

참고 : 안평중(晏平仲)의 이름은 영(嬰)이며 춘추시대(春秋時代) 제(齊)나라의 재상으로 경공(景公)을 도와 제나라의 번영을 꾀하였다. 평중(平仲)은 그의 자(字)이다. 晏→늦을 안, 仲→버금 중, 久→오랠 구, 敬→공경 경.

● 상식(相識)이 만천(滿天下)하되 知心能幾人(지심능기인)고

해설 :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온 세상에 많이 있어도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 고."

● 酒食兄弟(주식형제)는 千個有(천개유)로되 急難之朋(급난지붕)은 一個無(일개무)니라.

해설 : 서로 술이나 음식을 함께 먹을 때의 형제는 천 사람도 많이 있으나, 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 도와줄 친구는 하나도 없느니라.

참고 : 識→알 식, 기록할 식, 能→능할 능, 幾→몇 기, 急→급할 급, 難→어려울 난(란), 朋→벗 붕, 個→낱 개, 주식(酒食)⇒술과 음식, 급난지붕(急難之朋)⇒위급하고 어려울 때의 친구.

● 不結子花(불결자화)는 休要種(휴요종)이요 無義之朋(무의지붕)은 不可交(불가교)니라.

해: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지니라."

참고 : 結→맺을 결, 休→쉴 휴, 要→요긴할 요, 種→씨 종(명사일 때), 심을 종(동사일 때), 義→옳을 의, 交→사귈 교, 可→옳을 가, 휴요종(休要種)⇒심지 말라. 불가교(不可交)⇒사귀지 말라. 무의지붕(無義之朋)⇒의리 없는 벗.

● 君子之交(군자지교)는 淡如水(담여수)하고 小人之交(소인지교)는 甘若醴(감약례)니라.

해설 : "군자의 사귐은 맑기가 깨끗한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그 달콤하기가 단 술과 같으니라."

● 路遙知馬力(노요지마력)이요 日久見人心(일구견인심)이니라.

해설 : "먼 길을 가보아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오랜 날을 지내보아야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참고 : 淡→맑을 담, 甘→달 감, 若→같을 약, 략, (야)⇒반야(般若)⇒범어(梵語)에 반야라 발음 함, 醴→단술 례, 노요(路遙)⇒먼 길, 路→길 로(노), 遙⇒멀 요, 久→오랠 구, 일구(日久)⇒오랜 날, 知→알 지, 馬→말 마, 見→볼 견.

특별기고 〈71회〉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 권준(百忍 權晙) 장군〈23〉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또 수로(水路) 주선(舟船;배;선박)은 모두 고구려의 수군에게 격파한 바가 되어 운량(運糧;식량 운반)할 길이 없으며 또한 요동은 천기(天氣)가 조한(早寒;이른 추위)할뿐 않이(아니)라 강설(降雪;눈이 내리는 것)이 역조(亦早; 또한 빠름)하므로 만일 추풍에 초엽(草葉;풀잎)이 고(枯;시들고) 강설이 일직(찍)하면 우마군양(牛馬群羊;소말 양무리)의 사료가 없어서 아사하기 쉬운지라 이에 당태종이 황급(惶急)하여 왕도종으로 하여금 안시성을 급히 공격하나 도무지 공하(攻下)할 계획이 없어서 속 내용으로는 회군을 꾀하더니, 맛참(마침) 개소문이 요동 전사(戰事)를 양만춘과 추정국(鄒定國) 두 장군에게 맥기(맡기)고 정병 3만으로 적봉(赤峰; 지금의 열하(熱河)을 지내(나) 다시 남진하여 장성(長城) 넘어 불의에 상곡(上谷;지금의 하북성(河北省) 하향현(河向縣) 여러 성을 격파하니, 당태자 이치(李治)가 어양(漁陽)에 유(留)하다가 대경실색하여 고급봉화(告急烽火;급히 알리는 봉화)를 드니 일야(一夜;하룻밤)의 사이에 안시성까지 연(결)하는지라 이에 당태종이 임유관내(臨渝關內)에 변란이 있음을 알고 곧 회군하려 할 지음에 안시성주 양만춘과 오골성주 추정국은 그 봉화로 인하여 개소문이 이미 목적지에 도달함과 당태종이 장차 퇴각할 줄을 짐작하고 추정국은 전군을 거느리고 안시성 동남의 협곡으로부터 잠출(潛出)하여 당군을 돌격하고 양만춘은 성문을 열고 급격(急擊)하니 당병이 대란(大亂)하여 인마(人馬)가 서로 말티면서 도망하여 각자로 도명(圖命)하니 당태종은 헌저락(軒苧濼)에 이르러 마제(馬蹄;말발굽)가 니녕에 빠져서 요동(搖動)하지 못할 뿐만 않이라 좌목(左目; 왼쪽 눈)은 양만춘의 화살에 마저(맞아)서 그에 생금(生擒;사로잡음)하게 되었으니, 마참 당나라가 명장 설인귀(薛仁貴, 613~682)가 달여(려)와서 당태종을 구하여 혈전(血戰)한 지 양구(良久)에 겨우 탈주하였다. 지금도 만주(滿洲) 해성현(海城縣)에 「당태종함마처(唐太宗陷馬處)」이라는 곳이 있다.

양만춘 추정국 등이 당태종을 쫓아 요수(遼水) 이르러 수십만 당군의 장병을 참획(斬獲)하고 요혼(遼渾)에 이러(르)니 당태종이 하도 급하여 말과 사람을 니녕에 씨러(쓸어) 느(넣)어서 교과(橋棵)를 삼고 도망하였다.

10월에 당태종이 임유관에 이르니 개소문이 당군의 귀로(歸路)를 끈코(끊고) 당태종이 오기만 기달이(다리)고 있으며, 그 뒤에는 양만춘의 진격이 급하여 당태종이 갈 바를 모르드(더)니 맛참(마침) 풍설(風雪)이 크게 일어나 천지가 아득해서 지척(咫尺)을 분별치 못하여 양군(兩軍)이 서로 혼전(混戰)하는 기회를 타서 당태종이 도망하였다.

이상에 말한 안시성의 전역(戰役)은 동양전사(東洋戰史) 상에 대전쟁이다. 비록 숫자상으로 양군의 병력은 살수전역에 불급하나 피차 작전계획의 주밀(周密)과 군대의 축예(軸銳)와 자력(資力)의 경비 등은 살수전역보다 초과하였으며, 전투의 시일도 그보다 배가 되었다. 이 전쟁으로 말하면 공 양국 민족의 운명을 내기한 전쟁이다.

8. 당태종이 독화살(독전毒箭)으로 죽음과 개소문의 당나라 정벌(정당征唐)

당태종이 양만춘의 화살에 눈이 빠진 것은 보편적으로 어느 사람(何人)을 물론하고 모두 아는 것이고, 당태종이 죽을 때에 병증(病症)을 기록한 것을 보면, 혹은 내종(內腫;안 종기)으로 죽었다 하니 혹은 새질(塞疾)로 죽었다 하고, 혹은 이질(痢疾)로 죽었다 하니 일대 전 중국을 막음대로 흔들은 만승(萬乘) 황제의 죽은 병이 장질부사(腸室扶斯)로 죽었는지 또는 늑막염(肋膜炎)으로 죽었는지 모두지 모르도록 모호한 말로 기록한 것은 대개 고구려인의 독화살에 죽은 치욕을 숨개(기)기 위하여 이와 같은 모순의 기록을 쓴(은)것이다. 그러나 사기(史記)에 태종이 요동에서 얻은 병이라 함은 모든 기록이 동일한 것을 보면 양만춘의화살의 유독(遺毒)으로 죽은 것은 분명한 것이다.

개소문이 중국을 침공한 것은 당사(唐史)에도 그 기록이 남어 있는 것이다. 지금 증거로 북경조양문(北京朝陽門)에서 7里쯤되는 곳에있는 황량대를 비롯하여 산해관까지 이르는 동안에 황량대라 이홈(이름)한 지명이 10여 처가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황량대는 당태종이 모래를 싸(쌓)아서 양저(糧諸;곡식을 쌓다)한 곳이하고 속여서 고구려인이 내습하면 복병으로 영격(迎擊)하였다 하든(던) 곳이라하니 이는 곧 개소문이 댕태종을 전승한 후에 북경까지 공격한 유적이며 또 산서(山西), 산동(山東), 하북(河北) 등 성(省)에 간혹 고려영(高麗營)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해지(該地;해당되는 지역) 토인(土人; 토착인)의 전설에 의하면, 당나라 때에 고구려 장수 개소문이 점령하였던 고지(故地;옛 땅)라 한다. 〈다음호에 계속〉